

대전시 공원녹지 네트워크에 대한 제안

이시영 / 배재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교수

I. 서언

오늘날 공원과 녹지는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환경인 동시에 공공시설이다. 도시공원녹지는 도시 내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으로 지금까지 지속적 노력 하에 확충, 재생되어 왔으며, 행정당국 뿐 아니라 사회단체,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양적확대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공원·녹지는 도시의 오픈스페이스 중에서 공개성과 존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이 가장 높게 평가되며, 녹지체계의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이기철, 1993). 더욱이 도시집중화에 따라 시민의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레크리에이션의 수요와 기능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녹지공간의 양적인 확보와 질적인 향상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 자연환경조건은 시가지를 관통하는 갑천, 유등천, 대전천 및 지류들의 풍부한 수계와 외곽에서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계족산, 식장산, 보문산, 구봉산, 계룡산 등 환상 형으로 산지가 위치하고 있어 좋은 자연 여건을 가지고 있다.

대전시는 이러한 조건의 자연녹지를 포함하여 매우 높은 녹지율을 가지고 있으며 1인당 도시공원면적 또한 34.57㎡로 울산(34.84㎡)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변 자연환경 등에 의하여 수치상으로 좋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이 전체공원 면적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생활권 안에서 시민의 다양한 이용 요구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공원·녹지체계를 단순히 도시공원과 녹지의 연결만이 아니라, 오픈스페이스체계로서 규정하여 가로, 활동공간 등의 연계에 의해 완성되는 일련의 도시공간체계로서 발전시키고 있다.

대전시도 시가지내에서의 공원녹지 확보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공원녹지의 연결 뿐 아니라 오픈스페이스의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실현시켜 도시공간에

서 시민들의 공간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대전시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타진하여보고자 한다.

II. 대전시 주요 오픈스페이스 현황

대전시 내 오픈스페이스는 공원, 녹지, 광장류의 시설들로 분류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에는 총 408개소의 공원이 있

다. 총 지정면적은 50,611,610㎡이며, 대전광역시 전체 면적의 약 9.4%가 공원이다.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4.57㎡로 울산(34.84㎡)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도시공원 지정면적 중 도시자연공원이 70.9%, 묘지공원인 제2국립묘지 현충원이 6.3%로 도시외곽에 위치하는 공원이 77%에 이른다. 또한 지정면적의 약 33.8%만이 조성되어 있다. 조성률도 낮고,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비율도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현황

구 분	도시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합 계
지정개소 (조성)	7(각 공원별 일부조성)	77(44)	284(219)	37(0)	1(1)	2(0)	408
지정면적 (㎡)	35,892,553	10,697,224	650,242	21,800	3,226,510	123,281	50,611,610
지정면적 비율(%)	70.91	21.13	1.28	0.04	6.37	0.24	100.0
조성면적 (㎡)	10,325,561	3,102,566	459,108	0	3,226,510	0	17,113,745

자료 : 도시공원현황 2006 2006, 대전광역시

〈표 2〉 주요도시의 도시공원 비교

구 분	대 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울 산
공원면적	49,741	108,198	53,991	75,074	57,708	17,639	42,655
시민1인당 공원면적(㎡)	34.28	10.64	14.71	29.86	22.55	12.59	38.46
결 정 율(%)	9.22	17.87	7.07	8.59	8.14	3.52	5.68
조 성 율(%)	33.70	80.29	33.54	34.15	27.29	32.92	11.50

자료 : 대전공원화 2012 기본계획, 2006, 대전광역시

도시의 푸름은 공원과 녹지로 구분할 수 있다. 녹지는 도시의 녹화, 녹시율의 제공측면에서 중요한 도시 계획 시설물이다. 녹지는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되며(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35조) 과거 도시공원법에서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만 구분되었으나 2005년 개정 이후 연결녹지가 추가되었다.

현재 대전광역시내에 녹지는 총 279개소이며, 이 중 완충녹지167개소, 경관녹지 11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총 녹지면적은 2,665,422.7㎡, 완충녹지는 2,270,237.2㎡, 경관녹지는 395,185.5㎡이며, 비율로는 완충녹지는 전체녹지의 85.2%, 경관녹지는 14.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대전광역시 녹지현황

(단위: ㎡, %)

구 분	합 계		조 성		미조성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조성중		미조성	
녹지별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개 소	면 적
합 계	279	2,665,422	133	1,175,470	133	1,275,022	13	214,930
완충녹지	167	2,270,237	83	1,040,108	72	1,042,700	12	187,428
경관녹지	112	395,185	50	135,361	61	232,321	1	27,502

대전광역시 녹지조성률은 약 40%이며 완충녹지의 경우 새로이 조성되는 테크노밸리, 학하지구 등 택지개발지에 다량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낮은 조성률을 이해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는 광장, 공공공지, 유원지가 도시 내에서 유용한 오픈 스페이스이다. 대전

시에선 법정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광장 120개소, 공공공지 408개소가 있다. 광장은 교통광장과 IC, JC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중 시민이 이용 가능하고,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주 광장은 아래 5개소를 들 수 있다.

〈표 4〉 대전광역시 주요광장

연번	위 치	명 칭	비 고
1	중구 정동 1-1	대전역광장	
2	중구 오류동 170-23	서대전역광장	
3	중구 문화동 1-40 외4필지	서대전청소년광장	
4	중구 은행동	목적공원	
5	서구 둔산동 920	대전정부청사마당	

대전역 광장과 서대전역광장은 대전의 관문이며, 많은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하는 곳이며, 지리적으로 중심에 자리하면서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지만, 전체 불투수층 포장으로 덮여 있고, 식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택시승하차장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현황이다. 두 광장에 「숲의 도시대전」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식재계획, 광장 구조 변경을 고려해 볼만하다.



〈그림 1〉 대전역 광장 전경

특히 대전역광장은 구도심의 중심으로써 향후 “보문산- 도청이전적지-중앙로 보행자물에서 대전천”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중요 거점적 역할이 가능하다.



〈그림 2〉 보문산-테미공원-도청-중앙로-대전천-대전역 녹지축

다음으로 서대전 청소년 광장과 정부 제 3청사마당은 도심 내에서 보기 어려운 대규모의 잔디밭과 수목으로 덮여있는 도심의 산소탱크로 기능한다. 서대전 청소년광장이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어 적극 이용되고 있는 반면, 정부청사마당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그림"과 같은 장소로 낮은 접근성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우성이산-갑천-한밭수목원-정부제3청사마당”으로 이어지는 도심의 거점녹지 덩어리로 재 조성되기 위해서 정부청사마당에 더 적극적인 녹화, 도시 숲으로 재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 우성이산-갑천-한밭수목원-정부청사마당의 녹지축

대전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오픈스페이스가 지정되어 있고, 조성중에 있으며, 다른 시와 비교하여 녹지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공원녹지와 광장에서 본 바와 같이 연결성이나 위치적 면에서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시설 외에도 오픈스페이스 채

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존재한다. 대전시의 잘 발달된 하천들의 광활한 수변녹지공간들이 시가지 내를 휘감아 돌아가며 동맥과 같은 역할로 오픈스페이스의 주간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문화·역사자원들은 도시의 생명력과 근원을 유지시키는 주요 시설로서 장소적 맥락을 형성시켜 줄 것이며, 레크리에이션시설로서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각종 문화시설들이 공원시설과 더불어 도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연결체계를 형성시켜준다. 이들을 연결시켜주고 이어주는 선형자원으로서 선형녹지뿐 아니라 가로수가 가득한 보행자길, 자전거도로, 수변공간 등은 오픈스페이스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주요한 자원이 된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을 엮을 오픈스페이스 체계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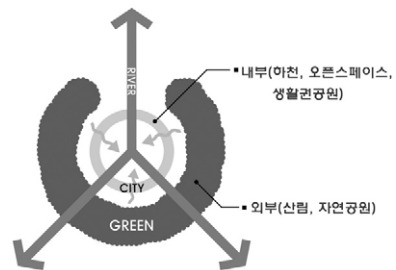
Ⅲ. 대전시 오픈스페이스체계 제안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는 기존 오픈스페이스 연결체계 방법을 이용하여 대전의 오픈스페이스 체계를 세우기에는 공원의 상당량이 외곽에 존재하며, 녹지는 지정되어있으나 아직 조성되지 않은 녹지량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 또, 공원과 녹지로 한정하는 기존개념에 탈피하여 넓은 의미의 오픈스페이스 개념

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천, 광장, 공공공지 등 폭 넓은 의미의 오픈스페이스로 개념 확대와 이러한 장소들의 유기적 공간 연속성(Organic Spatial Sequence)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화 된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수립이 필요하다.

1. 기본 개념

대전시 녹지축의 기본골격은 삼각축의 하천/변, 도시 내부링(Inner ring)을 구성하는 녹지, 생활권 근린공원, 외부로 산림, 자연공원, 농촌공간 등으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링(Outer ring)으로 구축한다. 삼각의 수변축이 도심 외부로 확장하여 연계시키며 외부링(Outer ring)으로부터 도심내부로 풍부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여 이러한 상호 교차형식에 의한 오픈스페이스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개념도

계획도시로서 잘 정비된 공원녹지공간의 신도심과 역사, 문화자원을 담고 있는 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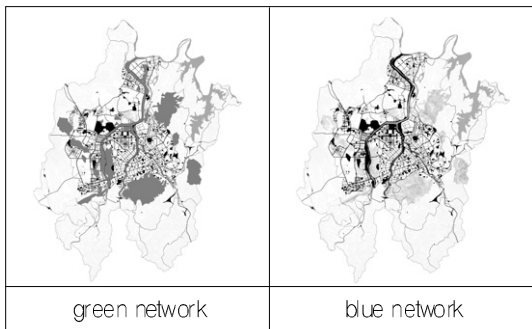
도시로서 구도심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를 수립한다. 또한 3대하천은 물론이고, 각 지천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도보권 공원이 부족한 구도심 내에 지천들을 적극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2. 접근 방법

대전시의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는 green, blue, gray, activity의 네 개로 구성할 수 있다.

· 녹색네트워크(GREEN NETWORK) 구축 : 환상녹지축을 중심으로 도심지내부에 분포되어 있는 공원과 녹지의 연계를 통해 물리적인 환경개선 및 경관향상 등의 다면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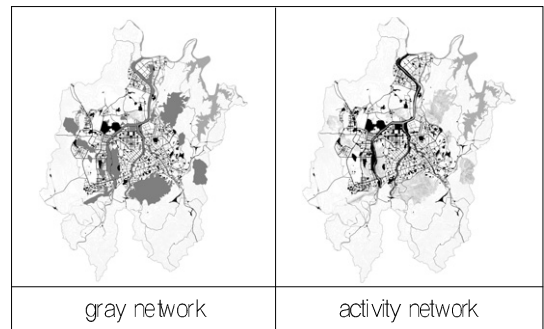
· 블루네트워크(BLUE NETWORK) 구축 : 3대하천을 중심축으로 하천변 녹지와 수공간을 이용하여 오픈스페이스와 연계할 수 있는 블루 네트워크체계를 구축, 근린생활권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그림 5〉 그린, 블루 네트워크

· 회색네트워크(GRAY NETWORK) 구축 : 빠른 속도와 생산적 행위를 수용하는 차와 사람들을 위한 도로망으로써 길로 연결되는 도시 패턴 속에서 시민들의 사회적 접촉이 많은 구간으로서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폭 확보, 공개공지를 이용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각 공간을 연계하여 회색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한다.

· 활동네트워크(ACTIVITY NETWORK) 구축 :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해 도시민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치관으로 인해 도시적 행위가 발생하는 구간으로서 공공의 성격이 있는 오픈스페이스와 연계를 통해 서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공공공간의 특성과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심부의 '장소성'을 강화한다.



〈그림 6〉 회색, 활동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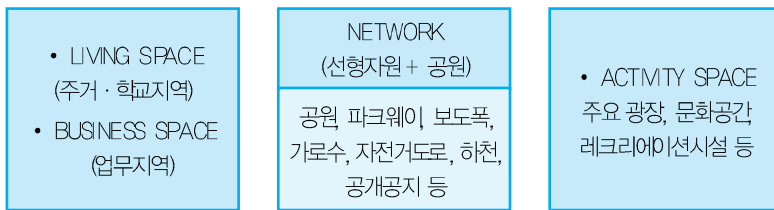
이중 Green, Blue network는 생태 네트워크이며, Gray, Activity network는 인간네트워크로서 생태네트워크와 인간네트워크체계의 긴장과 이완구조가 서로 얽혀 상호 보완적으로 맞물려 유기적이며 다양한 환경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표 5〉 네트워크의 유형

구분	유형	내용
생태 (eco)	그린네트워크 (green network)	• 공공공원, 농업지역, 산림지역, 보전지역
	블루네트워크 (blue network)	• 수공간, 하천 저수지
인간 (human)	회색네트워크 (gray network)	• 생산적 용도의 분포가 많은 구간
	활동네트워크 (activity network)	• 문화·역사적자원의 분포가 있는 공간, 공공성이 있는 공간 주거 및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는 가로망

여기에 덧붙여, 네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선형자원(천변, 철도변, 녹도,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등)을 활용하고, 신구도심의 특성자원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표 6〉 연결체계



자전거도로와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공원과 공원, 공원과 오픈스페이스 등을 연결하여 독립적인 보행로망을 형성하는 것 또한 하나의 축이며, 신도심과 구도심의 차별화된 자원을 이용한 연결체계를 확립한다.

〈표 7〉 신구도심 네트워크 자원

구분	신도심	구도심
네트워크	- 신도심의 랜드마크-문화-생태 네트워크	- 원도심의 역사-문화-생태 네트워크
자원	- 계획화된 공원, 녹지공간, 보행자물 - 대형건물관공서, 문화시설등) 공개공간 - 도심 가로광장	- 도시속에 존재하는 역사, 문화자원 - 문화 전통 거리, 재래시장 - 보호수, 문화재를 이용한 소공원
연결	- 자전거도로 - 연결녹지	- 보행자전용공간 - 가로공간

IV. 사례지예의 적용 : 중앙로(충남도청 ~ 대전역)

· 대상지 현황

관공서 및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으로써 대부분 건물 전면부에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고, 전면부 공개공지와 보행로의 연계를 도모하여 향후 도청 및 전 중구청부지들이 시민을 위한 공공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오픈스페이스 연계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

· 네트워크 자원

대상지에서 그린(green)은 플라타너스로 대표되는 가로수 뿐이지만, 향후 충남도청 이전지와 대전역광장의 녹지대, 복원될 홍명상가 아래 대전천변의 연결이 가능하다.

블루(blue)는 구도심을 휘감아 흐르는 대전천의 복원에 기대해 본다. 그레이(gray)는 지상과 지하의 두 가지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지상에 한해 이야기 하기로 하고, 충남도청에서 대전역까지 곧게 뻗은 중앙로를 중심으로 나뭇가지처럼 양 옆으로 뻗은 가로들이 있다.

activity는 으능정이 거리를 대표로 해서 대전역과 한의약거리, 금융빌딩, 중앙시장 등이 산재해있다.

구도심지역은 이미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분포되어 있다.

· 진단

가로변 시설로서 도심상업지구 내의 근대역시문화자원, 문화시설, 공공시설, 특화거리(으능정이거리, 대흥동 예술문화의 거리, 한복거리), 중앙시장 등 활동적인 공간의 분포가 많은 지역이지만 녹지공간으로써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역, 한약거리, 재래시장, 구 산업은행(유통 역사거리) - 대전천과 천변공원(생태축) - 구 국립농산물품질검사소, 대흥동 성당, 중앙로(문화, 청소년거리), 연정국악원, 화랑거리(문화거리), 도청 생태공원, 시립박물관(생태거점, 시민광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공간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계획함으로써 오픈스페이스 체계를 도모할 수 있다.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발위주의 방향성과 다른 시각으로 과거의 번성했던 옛 자원들의 재발견 및 옛 자원들을 연결매개체로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로는 대전의 중심이었으며, 살아있는 대전 문화의 요체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활동, 문화활동, 행정의 중심지로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이곳에는 네트워크의 중요요소인 장소적 맥락성이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다양한 활동공간들이 자리잡고 있고, 점점이 흩어져 있는 문화적 유산들, 또한 삶의

현장으로서 지금도 활발한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화거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표 8〉 구도심 네트워크 자원 분석

구분	위치	명칭		
ACTIVITY SPACE	활동이 있는 공간	중양로4거리	갤러리아백화점 올리비아 밀라노21	
		목천교~대전역	중앙시장	
		목천교~대전역	한의약거리	
		대전역4거리	대전역	
	관공서	도청거리	충남도청 중구청	
		문화공간	으능정아5길	으능정아거리
	레크리에이션	중양로4거리	대흥동예술문화의거리	
			아카데미무장	
			충청남도여성회관 카톨릭문화회관	
	BUSINESS SPACE	업무지역	도청5거리~중양로4거리	대신증권 현대투자신탁, 삼성빌딩 LG화재 LIG손해보험
중양로4~대전천			대한투자신탁, 삼성빌딩	
대전천~대전역			금융시설	
BLUE	하천	목척교	대전천	
LINEAR FACILITY	보도폭	도청5~대전역	7~9m	
	자전거도로	가로수	밀라노21구간	조성되어 있지 않음
			충남도청~대전역	밀라노21, 2열 식재 1열 식재



〈그림 7〉 중양로 네트워크 자원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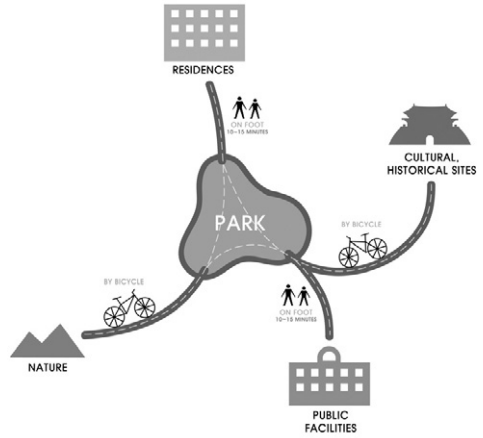
또한, 넓게 자리 잡고 있는 대전역, 도청, 그 사이에 행정기관 및 대형건물의 공개공지가 또한 점점이 흩어져 있다.

한편, 안타깝게도 지금은 잿빛 콘트리트로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전천이 목척교 아래로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과거 사진을 들여다보면, 중앙로를 덮고 있는 울창한 가로수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 거리에는 대전의 추억과 향수가 배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거리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상의 무형의 기운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장소성의 요체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문화적 유산이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공간(gray & activity resource)과 새롭게 생태하천으로 계획되고 있는 대전천(blue resource), 천변을 가득 메우게 되는 생태공간, 가로수의 확충, 재개발로 인한 녹지확보, 이전적지의 공원화(green resource) 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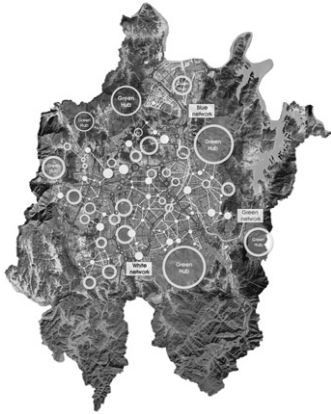
이와 같은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는 미래 생태지향적 관점에서 구도심의 생태적 허브공간으로서 보문산을 중심으로 테미공원, 그리고 가로수, 녹지대의 그린웨이 연결을 통하여 동식물을 위한 생태통로로 발전하는 하나의 진보된 생태적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구도심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도시공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현대적 오픈스페이스 네트워크

V. 제언

현재에 중앙로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계획되어지고 있으며, 물론 이러한 시도들은 대전시민들을 위하고 도시를 위한 것이다. 매우 주요한 시도로 중앙로 도로 자체의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차량중심보다는 인간중심의 도로 보행자가 가로의 중심이 되어 옛 과거의 활력을 되찾고 중앙로의 기운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보행 가로는 넓어지고 넓어진 가로에는 보행자의 활동공간과 쉼의 공간이 들어서며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넓어진 선형의 공간은 나무들이 숨을 쉬고 주변의 공간들을 연계해주는 척추와 같은 기능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림 9〉 대전시 네트워크 개념도

도청이 곧 이사간다. 아직 용도는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시점으로서 도청부지와 종점으로서 대전역까지 매우 중요한 자리이다. 또한 이것은 시점, 종점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공간의 결절점으로서, 활동축으로서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구도심의 생명줄로서 대전천이 다시 돌아온다. 생태하천으로서 탈바꿈되어지면 과거에 주었던 이점보다 수십배 더 많은 것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사실로서 매우 부족할 것만 같았던 구도심의 공간체계는 매우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세심한 공간 네트워크의 기술이 필요하다. 선형의 자원, 결절공간, 주요활동공간, 다양한 소공간, 그리고 좀더 큰 행위를 담아 줄 수 있는 광장 등이 서로 유기적인 연계체계로 공간적 연속

성(spatial sequence)을 이룬다면 이곳에 사람의 문화를 담아내어 매우 활력있는 장소를 만들어 줄 것이다.

본 구도심의 중앙로에 존재하는 자원요소로서 blue, green, gray 요소들은 activity 요소라는 자원으로 연결되어 총체적인 네트워크가 완성될 수 있다. 이러한 단위 네트워크체계는 보다 큰 네트워크체계로 발전하여 대전시 전체를 이어주는 네트워크의 전초기지가 되어 완성된 대전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줄 것이다.

참고문헌

대전광역시(2003),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환경도시조성을 위한 대전공원화 2012 기본계획』, 대전광역시청.

대전광역시(2005), 『2005공원·녹지사업 추진시책』, 대전광역시청.

이기철(1993), 『도시공원의 관리와 개선방안』, 토지개발기술, 24: 36-46.

이시영(2004), 『도시근린공원의 방문제약 요인: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2(1):23-32.

Gold(1980), "Recreation Planning and Design", McGraw-Hill Book Company

Reinhard Wippler.(1968), Social Determinants of Leisure Behavior. English Summary.

Soo-bong Kim(1994), A New

Perspective on Urban Green Space
Planning Policy—The Case of Taegu City,
Korea, University of Sheffield, U.K.,
Ph.D.

Charles E. Little(1990), Greenways for
America,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Robert Searn(1993), Greenway: A Guide
To Planning Design and Dvelopment,
Island Press

Jack Ahem(2003), Greenways in the
USA: Theory, trends and Prospects